

# 행복한 육아를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 내실화에 주력해야

이 영 소장

**지난 해부터**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교육서비스가 실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비용 지원은 다른 복지 부문들에 비해 획기적인 확장을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만 해도 20년 전인 1993년에는 5,490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43,7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투자도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에는 약 2조 4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해는 약 12조원으로 급증하였고, 2014년에는 중앙정부 보육예산만 해도 약 5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은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영아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하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는지는 의문시됩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학대, 국고보조금 횡령, 저질 급식 등으로 부모들은 기관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감소가 미비하고, 유치원비는 원칙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종일제 보육료 지원은 그 취지가 무색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부모의 지원이나 가정 내 돌봄 인력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만으로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맞벌이 가구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볼 일입니다. 이들 부모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종일제



기관보육·교육이 부모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유치원 교육 운영 개선사항으로 공립유치원의 설치·운영이 우선시되고,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기관보육에 대한 주된 요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부모들의 만족도는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좌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일차적인 목표는 부모들의 만족도 제고로서, 각 세부 방안도 이에 맞추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바는 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때 부모들이 원하는 바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추진이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 하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지원을 강화하려는 최근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부모들이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어야 보육·교육서비스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